

타입 1

• * ————— ✧ * ◆ * ✧ ————— * •

이세계의 현자

• * ————— ✧ * ◆ * ✧ ————— * •

절반(@H4lf_571ll)의 템플릿 참고

마법사의 약속 기반 캐릭터

“

처음 뵙겠습니다, 현자님.
부서져 가는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바람이 거세고 고양이가 술렁대는 보름달이 뜬 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주인공은

마법사와 인간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세계에 발을 들인다.
다섯 개의 국가로 이루어진 이 세계는 매년 한 번씩,

'거대한 재앙'

이라 불리는 거대한 달의 습격을 받는다.
그 달에 맞서 싸워 물리치는 것이 현자의 마법사들의 사명.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이세계에서 온 현자'로서,
주인공은 세계를 구하고 인간과 마법사의 다리가 되기 위해 이 세계에 소환됐다.
마법사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마음을 나누려 애쓰는 주인공

'언젠가 당신과 친구가 될 수 있다면.'

아름답고도 두려운, 부서져 가는 세계에서
마법사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신비로운 나날 시작된다.

히스클리프의 프로필



포딩님 커미션



이름

니아 —

성을 아직 못 정함... 아마 아이백이 될지도

나이

20-21 중에 고민중

성별

여성

키

159cm

외관



맑은 물색의 굵은 웨이브 머리는 엉덩이 윗쪽까지 온다. 앞머리는 1:9~2:8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자머리. 1(or2) 쪽의 머리는 완전히 깎 형태이다. 9(or8) 쪽에는 한쪽에만 크게 환풍구가 있다. 환풍구를 기점으로 굵게 머리를 덮는 스타일. 덕분에 한쪽 귀는 완전히 가려진다.

중간에 장미 모양으로 말아둔 머리카락은 매일 아침 손질하는 머리. 가끔 손질을 못 하는 날에는 낮게 하나로 묶는다.
조금 길게 뺏어나온 더듬이 한가닥(선 하나로만 표현된다.) 아무리 눌러봐도 더듬이가 죽지 않아서 고민했으나 이젠 받아들였다.

회색 눈매는 조금 처진 모양새. 위아래로 속눈썹이 풍성하다.

키가 작은 데에 비해 가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거유는 맞으나 폭유는 아니다.)
하단 링크의 **D-E** 정도의 느낌 참고 (일반적 가슴 사이즈와 맞지 않으므로 확인을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 참고해주세요! 실제 가슴X 참고용 표입니다!)

[커미션용 가슴 사이즈표](#)

*

니아는 양면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흐르는 맑은 물에서 반짝이는 윤슬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지만, 한편으로는 손만 살짝 닿아 보았을 뿐인데 더없이 차가운 냉기가 돌아 가까이 갈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드문드문 존재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조화롭고, 또 아름다움에 이어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인물이기엔 니아를 동경하고, 그 이상의 로맨틱한 감정을 품고 니아에게 빠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꼭 성애적인 방면이 아니더라도 니아의 외모는 많은 사람들을 순식간에 사로잡는 힘이

있다. 하지만 정작 니아는 그를 잘 인지하지 못한다. 직접적인 칭찬에 감사를 전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자신의 ‘강점’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성격



니아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균형’을 고수하는 성향이 있다. 당연히 범죄와 같이 중대한 일에는 가해자의 비중을 100%로 두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갑-을이라거나... 누가 더 좋아하고 말고의 차이를 달리 의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느낌이다. 니아의 전체적인 인상은 부드럽고 상냥한 편에 가깝지만, 자신(니아) 앞에서 무조건 스스로를 낮춰 행동한다거나, 혹은 자신(니아)의 경험을 무시하거나 ‘더 좋은 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식의 언행에 거부감을 느낀다. 물론 윗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 대하는 일에 반감을 가지진 않을 것이지만, ‘굳이’ 상대에게 호승심을 부리며 이기려 들거나, 다소 과한 방식으로 이어지는 일방적인 애정 표현에 부담/불편함을 느끼는 편이다. 그런 행동을 알아채도 바로 관계를 정리하는 쪽은 아니지만... 니아는 가능한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대인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에, 최대 서너 번은 참고 상대가 자신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만큼 배려심이 깊고 이타적인 면모도 있으나- 그 선을 넘어서 순간에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부분이 도드라진다. 지혜가 돋보이는 편.

호불호



니아는 수동적이나, 타인의 의견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불편함을 느낀다. 혹은 ‘니아가 잘 할 것 같으니까/니아가 잘하니까’ 같은 이유로 본인들이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를 떠맡기는 일에 특히나 질색한다. 니아는 웬만해서는 무언가를 무서워하거나 싫어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괜히 니아의 심기를 거슬러 관심을 끌려는 사람들도 있을 테다. 니아로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 주지만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좋게 넘어가려 노력하는 편이다. 그런 니아를 생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대상도 결국은 사람이다. 니아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아껴주며 니아가 해야 하는/하고 있는 일에 든든한 격려와 애정을 쏟는 측근들이 니아의 마음을 강인하게 만든다.

추가 좋아하는 것들



- 건강식 (샐러드, 이쪽 세계에는 없으나 원래 살던 세계에서는 양념 없는 두부 과자)
- 독서(를 좋아했지만 이쪽 세계의 글을 모른다... 알고 있는 글이 있는 현자의 서만 주구장창 보거나 마법사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한다.)
- 새로운 것, 연구 (알게 되는 것이 즐거운듯. 이쪽 세계의 글도 루틸을 통해 배우는 중이다.)

사람들 안에서의 포지션



니아는 대체로 중재자나 중립에서 객관적으로 판단/분석하는 인물에 가깝다. 성격 란에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니아는 자신이 이런 역할을 담당해도 되는 건가? 생각하다가도 여러 명의 이야기를 듣고 중심과 핵심을 짚어내야 하는 순간이 상당히 피로하게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니아의 차분함과 지혜, 현명함을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를 니아로부터 조언을 구하고자 찾아오는 일이 잦기에 조금 힘들고 지칠 때는 일부러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도 한다. 물론 그런 이유를 배제하고도 니아를 궁금해하고 좋아하거나, 동경하는 사람이 많았기에 니아의 마음과는 별개로 다른 사람과의 약속이 많을 것이다.

강점



니아는 무엇이든 배우면 곧잘 익히는 편이기에 평소 하는 일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한들 집중만 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려워하거나 물러서는 일 없이 나서서 실전에 뛰어들 수 있는 담력까지 갖추고 있다. 니아의 뛰어난 눈썰미는 ‘피해야 하는’ 부분과 ‘해야 하는’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바 없지만 책임감이 강한 편이기에 자신의 실수로 주변 사람들의 일까지 방해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반복해 닦은 일까지도 몸에 익히는 노련함이 있다. 어쩌면 타고나기를 팔방미인일지도 모르겠지만, 니아는 자신의 ‘재능’ 보다는 노력하여 이루어낸 결과, 성과로 증명함으로써 자신이 가진 역량을 잘 활용하고 드러낸다.

약점



니아가 만약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품게 된다면 애정 어린 표현에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상대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좋아한다면 묵묵히 곁에서 챙기는 것으로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겠지만, 상호간에 사랑이 오가고, 자신 역시 상대의 작은 언행 하나하나에 몰두하게 될 때 예측할 수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동하는 일이 잦아진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일단 마음의 문을 열게 됐다’는 쪽에 가깝기에 니아는 상대에게 ‘고마워’, ‘그래 좋아.’ 이상으로 깊거나 짙은 표현을 아직까지는 부끄러워한다. 이를테면 사랑해, 보고 싶어 같은 말들에 특히나 약하다.



연애?

상대와 얼마만큼의 시간을 함께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니아는 대체로 상대를 위해 먼저 물려서고 배려하는 모습을 주로 보인다. 다만 아닌 것은 아니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고, 서운한 일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골이 깊어지는 일이 없도록 짚고 넘어가는 쪽이다. 그러다가도 상대에게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인다거나, 진심 어린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상대를 놀라게 해주는 귀여운 이벤트도 준비하지만 사랑이라는 감정에 너무 깊이 빠져버리면 안정적인 일상 영위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 속에서 잔류하기 때문에

1부터 10까지를 두고 얘기하자면, 상대에게는 최대 8가지의 진심과 진실을 보이고 알린다.
나중에 이별했을 때 감당해야 할 괴로움과 슬픔을 덜어내기 위해.



동물



외관만 따졌을 때에는 **롭이어 토끼**
성격까지 따지면 **고양이**

상당히 우아하고, 차분한 성향의 고양이로 비유될 것 같다. 딱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치지도 않지만, 불편하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황에서는 똑바로 표현하는 편이며 반대로
자신을 아끼거나 본인이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살금살금 다가가 곁을 맴도는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쪽이다. 다른 고양이랑 비교했을 때 흥분하는 일이 극히 드물고, 사뿐사뿐 조용히
움직이며 고양이 특유의 사건 사고...?로부터 거리가 있다. 우는 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아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를 전하기 위해 작게 신호를 주는 것이 전부. 자유롭게
안정적이며, 도도한 듯 하면서도 예의 바른 고양이!



그 외 외관표나 그림들



A 니아
Nia



나이

키

동물파

성향 작성



HAIR
L EYE
R EYE
ETC



필수

쳐진 눈매, 한가닥 더듬이, 큰 가슴

- ☐ 속눈썹이 풍성한 쳐진 눈매
- ☐ 한쪽을 완전히 갠 형태
- ☐ 선으로 된 한가닥 더듬이
- ☐ 한쪽만 미소녀 환풍구
- ☐ 큰 가슴
- ☐ 엉덩이 윗쪽까지 오는 풍성한 곱슬머리
- ☐ 살짝 도도롭힌 입술 (너무 두껍지X)

POINT 필수는 아니나 캐릭터 표현에 도움이 되는 포인트



장미 머리
(바늘 뚫는 곳 하기도)



살짝 도도한 입술



큰 가슴



체형

ETC 참고용 이미지

-1:9 ~ 2:8 정도의 갠 앞머리(일자)

-풍성한 느낌의 엉덩이 윗쪽까지 오는 긴 웨이브 머리

-머리 중간에 있는 장미는 매일 아침 손질하는 것 (그래서 가끔 손질 못한 날은 낮게 하나로 묶어서 나눔)

-'선 하나로' 표현되는 더듬이(NOT 한가닥)

-내려간 눈매와 풍성한 속눈썹 (위아래로 모두)

-체구가 살짝 작은 편이나 가슴이 크다(...)

-한쪽만 미소녀 환풍구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색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DESIGN © YAMOI

외관표



맘마님 커미션



본인 그림

오너가 뽕 차서 만든 인트로